

솔직한 일상·속마음 공개...공감 얻는 '돌싱 예능'



최근 '돌싱' (돌아온 싱글)들이 예능가의 한 축이 됐다.

제법 인기를 얻었던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와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시리즈가 퇴장한 뒤 최근에는 JTBC '용감한 솔로 육아 - 내가 키운다', SBS TV '신발 벗고 돌싱포맨', MBN '돌싱글즈'까지 잇따라 론칭하면서 아예 '돌싱 예능'이 주류 장르로 자리 잡은 분위기다.

같은 '돌싱 예능'이라도 세부 포맷은 다양한 것도 특징이다. '우리 이혼했어요'는 이혼한 스타 부부가 다시

상을 보내는지 공개되지 않은 스타들이라 더 주목 받았고 이들은 기대 이상으로 솔직하게 일상은 물론 속마음까지 공개해 호평받았다.

다양한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스타들이 각종 육아 팁과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은 '돌싱'과 '육아' 코드를 조합해 새로운 예능 장르의 탄생을 알렸다.

출연진과 마찬가지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배우 채림이 MC로 나서 이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 이미 혼자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방송인 김구라가 이따금 건네는 조언

그 외중에 가수 이상민이 지난 13일 시작한 또 다른 돌싱 예능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출연 중인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신발 벗고 돌싱포맨'은 이상민 외에도 배우 겸 방송인 탁재훈, 배우 임원희, 개그맨 김준호 등 SBS 간판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친숙한 멤버들을 발탁해 시작부터 시청률 5%를 넘겼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야외나 스튜디오가 아닌 자신의 집으로 게스트를 초대해 이혼부터 사업 실패,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 스튜디오가 아닌 가장 편안하고 친숙한 집에서 녹화가 진행되는 만큼 MC들의 '무장 해제' 된 모습을 최대한 고집내는 게 포인트다.

이처럼 '돌싱 예능'은 최근 돌싱들이 늘어난 사회상을 자연스럽게 반영한 결과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최근 "1인 가구를 조명한 '나 혼자 산다'가 성공했던 것처럼 이혼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도 많아졌고 그를 반영한 예능도 나오게 된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혼모든 비혼 자녀든 돌싱이든 이들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장벽이 되고 이 사회의 미래도 없어진다. 방송사들이 다양한 형태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도 "용기 있는 선택을 조명하고, 그러면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선택이자 여러 방법의 하나라는 것을 강조해 조명하는 것은 방송가에서도 필요한 관점"이라고 공감했다.

/연합뉴스

'내가 키운다' '신발 벗고 돌싱포맨' '돌싱글즈' 등 잇단 론칭 포맷도 데이팅부터 육아까지 다양...주류 장르 자리매김 용기 있는 선택 조명...일반인과 다르지 않은 방법의 하나 강조

만나 재결합 여부를 고민해보는 과정을 담아 서사와 예능 코드를 함께 갖췄고,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는 다시 사랑하고 싶은 돌싱 스타들의 데이트 도전을 담아 공감과 격려를 함께 얻었다.

최근 '내가 키운다'는 돌싱이 된 싱글맘들의 육아기를 담아 큰 화제를 모으며 3%대(닐슨코리아, 이하 비지상과 유료가구) 시청률로 순조롭게 출발했다.

출연진은 배우 조운희, 김현숙, 방송인 김나영으로 구성됐는데, 대부분 이혼 후 어떻게 아이들과 일

도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했다.

'돌싱글즈'는 비연예인 돌싱들을 내세운 데이팅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서 MC 군단에 가수 이해영과 배우 정겨운 등 돌싱 또는 이혼 경험이 있는 스타들이 포함돼 스토리가 풍성해졌다.

특히 이해영은 프로듀서 이상민과 이혼 후 힘들었던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내 이목을 끌었다. 이제 재혼 10년 차가 된 그는 "이혼 후 3년 동안은 사랑을 안 만났다. 재정신으로 살지 못했다"며 "(전 남편과) 교집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10년 걸렸다"고 밝혔다.

브로콜리너마저, 2년 만에 새 앨범 들고 돌아온다

"포기 순간에 있는 이들에 위로"

밴드 브로콜리너마저가 2년 만에 새 앨범을 들고 돌아온다.

소속사 스튜디오브로콜리는 19일 브로콜리너마저의 EP(미니앨범)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를 발매한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발매한 정규 3집 '속물들' 이후 처음으로 내놓는 신보로, 포기의 순간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위로로 전한다.

브로콜리너마저의 앨범 소개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포기의 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일상의 많은 부분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며 "이 앨범은 그 길고 지난 과정 겪어온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자 자기 고백"이라고 말했다.

덕원이 작사·작곡한 타이틀곡 '어떻게든 뭐라도'에는 끝없이 발버둥 치며 버텨온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애쓰지 말고 편안해지라는 조언을 건넨다.

이어지는 수록곡 '좋았었던 날은'에서는 끝내 포기할 수 없는 일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2020'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포기의 순간에 직면하게 한 2020년을 보낸 감상을 담았다.

이 밖에도 대표곡 '유자차'를 잇는 푸드송인 보너스 트랙 '라면 너라면 관찰야', 앞서 싱글로 선보였던 '바른 생활' 등을 수록했다.

덕원, 잔디, 류지호 구성된 브로콜리너마저는 2007년 '앵콜요청금지'를 통해 이름을 알린 이후 '보편적인 노래',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네', '졸업' 등 청춘의 감수성이 묻어나는 노래로 사랑받았다.

약 10년 동안 브랜드 공연 '이른 열대야'를 개최하는 등 여러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블랙 위도우' 2주째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

지난 7일 개봉 누적 관객 213만명

마블의 블록버스터 '블랙 위도우' (사진)가 2주째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1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블랙 위도우'는 지난 주말 사흘(16~18일) 동안 44만5000여명(매출액 점유율 47.9%)의 관객을 끌어모았다.

지난 7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은 213만9000여명으로, 올해 최고 흥행작인 '분노의 질주:더 얼티메이트' (228만6000여명)의 기록도 조만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태국의 합작 영화 '랑종'은 2위를 차지했다. 30만5000여명(33.3%)의 관객을 더해 누적 관객은 55만8000여명을 기록했다.

'곡성'의 나홍진 감독이 원안과 제작을 맡고 태국의 최고 흥행작을 만든 반종 피산다나란 감독이 연출해 화제가 된 영화는 개봉 후 이틀 동안 평일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지만, 여성과 아동, 동물에 대한 확대와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장면 등으로 호오(好惡)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연합뉴스

래퍼 슬리피, 비연예인과 오는 10월 백년가약

오는 10월 백년가약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37·사진)가 오는 10월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슬리피는 19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결혼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소중한 인연을 만나 미래를 약속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비 신부를 두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든든히 제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조심스러운 시기에 조용히 식을 치르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 힙합 듀오 언더처블로 데뷔한 슬리피는 2015년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MBC TV '일밤 - 진짜 사나이 2'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